

한용운 시의 불교적 유토피아 의식 연구*

김 경 복**

1. 서론
2. 한용운 시에 나타난 현실 비판의식
 - 1) 님의 침묵과 진리 부재의 현실
 - 2) 주권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현실
3. 한용운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양상
 - 1) 불성 회복과 극락정토
 - 2) 구세주의와 평등사회
4. 결론

<국문초록>

한용운 시를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볼 필요성은 첫째, 그의 『님의 침묵』이 당시 수렁에 빠진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의도적 기획으로 쓰여졌다는 점, 둘째, 그의 시는 문학적, 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조선불교유신론」 및 「조선독립이유서」와 연결되는데, 이 두 편의 글은 당시의 한용운의 역사적 실천의식을 담고 있어 유토피아 사상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용운 스스로 ‘불교사회주의’란 용어를 썼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의 정신사에서 유토피아적 사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유토피아 사상의 특성이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용운의 시를 살펴보면 부정적 현실

* 이 논문은 2017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경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kkbyh@kyungnam.ac.kr)

비판의식의 측면에서 ‘님의 침묵과 진리 부재의 현실’, ‘주권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현실’의 양상을 보이고, 대안적 사회상의 측면에서는 ‘불성 회복과 극락정도’, ‘구세주의와 평등사회’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님의 침묵과 진리 부재의 현실’은 「님의 침묵」 등의 시를 통해 일제 하 침략의 현실을 불법이 사라진 상태, 즉 부처님으로 상징화된 님의 침묵으로 인해 무법천지로서 진리의 부재의 현실임을 표현하고 있다. ‘주권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현실’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등의 시를 통해 일제의 침략에 따른 주권과 인권의 상실이 우리 민족을 수탈과 능욕의 대상이 되게끔 하여 매우 불평등하고 처참한 현실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대 사회의 부정적 면을 극복한 사회상으로 제시하는 유토피아 사회상은 한용운 시에서 먼저 ‘불성 회복과 극락정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작품들을 통해 불교적 사상에 기반을 둔 역설적 인식으로 보다 고난에 찬 경험이 불법을 되찾게 되리라는 진리의 확신으로 제시되면서, 현실 속에서 갈망하는 극락정도의 이미지를 민족적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다. ‘구세주의와 평등사회’ 부분에서는 일제 하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대승적 보살정신을 입각한 중생 구제의 사상을 피력하면서 「명상」이라는 시를 통해 불교사상으로 볼 수 있는 무계급성과 평등정신, 물질적 궁핍이 없는 사회성을 그려내어 이상적 사회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는 그가 당대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사회주의 사상의 구체화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한용운의 불교적 유토피아 의식은 일제 하 고통스런 민족적 현실에서 불법의 회복을 통한 불국토가 건설되길 꿈꾸면서, 그러한 현실적 실천의 한 방편으로 불교사회주의에 해당하는 평등사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자리 잡길 염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요어: 한용운, 유토피아 의식, 불교사회주의, 구세주의, 평등사회

1. 서론

한용운의 시를 왜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가? 그의 시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되어 왔고, 특히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실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만해의 시를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때문에 만해 시의 새로운 의미와 의의를 위해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만해의 시가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용운의 대표시라 할 수 있는 『님의 沈黙』(1926)이 1925년 8월 중 오세암에서 탈고된 것을 두고 볼 때, 시적 지향은 하나의 '의도적 기획'으로 쓰여졌다는 것, 특히 이 의도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두고 볼 때 3·1 만세운동의 실패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민족공동체의 회복을 염두에 둔 시적 의도라면 유토피아적 사고의 표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시집 『님의 침묵』은 다른 여러 문학적, 문학사적인 측면들과 함께 「조선불교유신론」(1913) 및 「조선독립의 서」(1919)에 연결되는 측면에서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유토피아 사상이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사유라는 측면에서 한용운의 철학적, 실천적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유신론」과 「조선독립의 서」는 그의 현실적인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고, 이러한 사상의 연장선상에 시집 『님의 침묵』이 창작된 만큼 시집 『님의 침묵』도 하나의 같은 사상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의 필요성은 한용운의 생애 속에서 양계초의 저작들이 만해의 사상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해보면 더욱 제기된다. 만해사상의 기본적 윤곽은 양계초에게 힘입은 것으로서, 그는 이 중국 계몽사상가의 저작들을 통해서 문명의 진보와 합리주의를 믿는 계몽주의자로 되었던 것이다.¹⁾ 만해는 불교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진보적인

1) 염무웅, 「만해 한용운론」, 『한용운』, 지식산업사, 1981, 201쪽.

계몽주의자가 되었고, 근대적인 자유주의를 불교적 평등의 개념 속에 흡수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자유주의에 결부되기 쉬운 이기적 개인주의를 배격하는 동시에 불교의 보살정신을 사회개혁의 사상적 거점으로 확인하였는데,²⁾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해명해야 보다 분명한 의미와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만해 스스로 ‘불교사회주의’란 용어를 썼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의 정신사에서 유토피아적 사유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는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재래의 불교는 권력자와 함하여 망하였으며, 富豪와 함하여 망하였다. 원래 불교는 계급에 반항하여 평등의 진리를 선양한 것이 아닌가. <중략> 이제 불교가 진실로 진흥하고자 할진대 권력계급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민중의 신앙에 세워야 할지며, 진실로 그 본래의 생명을 회복하고자 할진대 재산을 탐하지 말고 이 재산으로써 민중을 위하여 법을 넓히고 道를 전하는 실수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³⁾라고 말한 바 있고, 이러한 생각을 확대하여 만해는 1931년 12월 《삼천리》 기자와의 대담에서 “불교사회주의에 대해 저술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⁴⁾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와 같은 것은 교리 자체에 있어서 평등주의 非私有主義 즉 사회주의 소질을 俱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교』 93호(1932.3)에서 말하고 있어 유토피아적 사상의 흐름을 그의 생애의 과정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만해의 시를 유토피아 사상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매우 소략한 상태다. 김옥순은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에 대하여 -한용운과 신동엽의 시를 중심으로-」에서 만해의 시를 평등주의와 구세주의 관점에서, 그리고 교육적 관점에서 이상사회를 위한 이미지를 분석해 내고 있어⁵⁾ 만해의 시를 유토피아적 관점에서 바

2) 위의 글, 206쪽.

3) 한용운, 『한용운 전집 2』, 신구문화사, 1973, 133쪽.

4) 『한용운 전집 2』, 292쪽.

5) 김옥순,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에 대하여-한용운과 신동엽의 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어문학회, 2000.

라보는 긍정적 의의를 확보하고 있으나, 유토피아 사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만해의 관념지향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현실성에 입각한 유토피아성을 충분히 해명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김참 역시 한용운의 시를 민족주의로 보아야 할 근거를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한학을 익혔던 점, 동학과 의병운동에 참가했던 점, 일본과 중국 체류 중에 근대적 사상을 공부했던 점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⁶⁾고 보고 이를 이상향 관점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은 의의 있는 접근을 보였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학사상과 불교정신의 상관성은 만해 한용운의 정신사적 발전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불교의 사유와 민중성은 기존 계급 체제를 대신할 이념으로서 동학에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⁷⁾에서 동학 운동의 참여가 불교정신과 연관되어 이상향 지향의 모태가 되었다는 분석은 꽤 일리가 있는 것이다. 동학에 불교적 사상이 내재해 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고 생명이 있어 평등하며, 전체와 개체가 둘이 아닌 한울타리요, 한울타리인 세계가 끊임없이 생성하고 개벽한다'는 이치에서 불교의 화엄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⁸⁾ 그러나 그의 논문은 유토피아 사상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당대의 비판적 현실인식을 시 속에서 해명하지 않고 있고, 「명상」시에 나오는 이상향을 불국토로 보고 이것을 한용운이 절실히 욕망했던 민족공동체 회복이었다는 점⁹⁾은 바로 보았으나 이것을 「조선불교유신론」이나 「조선독립이유서」 등과 관련지어 해석해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한용운 시 연구의 이러한 전제와 여건에 따라 만해의 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유토피아적 의식의 분석이 요청된다. 본 논문은 이에 유토피아적 사유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적 현실 인식의 측면과 대안적 이상사회 형상을 만해의 시에 검출하여 그것이 갖는 의미를 규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김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인제대 박사학위논문, 2009, 87쪽.

7)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산지니, 2011, 137쪽.

8) 정혜정, 「동학과 불교사상」, 동학학회, 『동학과 전통사상』,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4, 98~99쪽.

9) 김참, 앞의 논문, 90쪽.

2. 한용운 시에 나타난 현실 비판의식

유토피아란 인류의 가장 깊은 갈망과 가장 고귀한 꿈, 그리고 가장 높은 포부가 성취되는 상상의 사회로서, 인간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깨달은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물리적·사회적·정신적 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회¹⁰⁾를 말한다. 마르틴 부버도 유토피아를 인류 정신사에서 인류공동체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올바름에의 갈망이라고 전제한 뒤 자각적 인간의 의지 외의 어떤 다른 요인들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회상¹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유토피아는 만약 인간이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실제 주어져 있는 것’을 반박하고 수정한다.¹²⁾ 그것은 이상사회를 표상하는 까닭에 당위의 세계이며 현실에 대한 제도적 비판과 개혁을 위한 제안의 성격을 띤다.¹³⁾ 이를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유토피아 사상가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특정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구체적 상(像)을 제시해 준다¹⁴⁾고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유토피아는 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¹⁵⁾ 이러한 유토피아적 사고의 내용은 한용운 시에서 우선적으로 ‘님의 침묵과 진리 부재의 현실’, ‘주권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현실’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1) 님의 침묵과 진리 부재의 현실

유토피아 사상의 출발은 당대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한용운의 시에서 가장 먼저 검출되는 유토피아 의식의 특성은 ‘님의 상실’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시가 이를 잘 보여준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10) 로자벳 캔터, 김운 역, 『공동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 10쪽.

11) 마르틴 부버, 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38~40쪽.

12)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숲, 1993, 322~323쪽.

13)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11~30쪽.

14)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탐구당, 1988, 15쪽.

15) 마르틴 부버, 앞의 책, 40쪽.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읍니다.

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微風에 날아갔읍니다.

날카로운 첫「키쓰」의追憶은 나의, 運命의 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읍니다.

〈중략〉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읍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沈默」(『님의 沈默』) 부분¹⁶⁾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님의 사라짐’이다. 시적 정보로 볼 때 님은 나에게 “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盟誓”를 하고, “날카로운 첫「키쓰」의追憶”을 남긴 대상이자 결정적으로 나의 “運命의 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진” 존재다. 강렬하면서도 고귀하고, 그러면서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엄청난 상실감과 절망감을 주고 떠나간 존재라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존재의 상실로 인한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자아의 의식적 노력을 이 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이 시는 당대의 현실에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자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대상의 상실을 노래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님의 상실로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캄캄한 밤’으로 희망이나 진리가 사라진 상태를 암시하게 된다. 다음 시편들이 이를 보여준다.

당신이 기실 때에는 겨울밤이 찌르더니, 당신이 가신 뒤에는 여름밤
이 길어요.

책력의 內容이 그릇되었나 하였더니, 개똥불이 흐르고 버레가 옵니다.

긴 밤은 어데서 오고, 어데로 가는 줄을 분명히 알았읍니다.

긴 밤은 근심바다의 첫 물결에서 나와서, 슬픈 音樂이 되고 아득한 沙漠

16) 최동호 편, 『한용운 시전집』, 문학사상사, 1989, 20쪽.

이 되더니, 필경 絶望의 城 너머로 가서, 惡魔의 웃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름밤이 길어요」(『님의 沈黙』) 부분¹⁷⁾

그 나라에는 虛空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戰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宇宙萬像의 모든 生命의 礎대를 가지고, 尺度를 超越한
森嚴한 軌律로 進行하는 偉大한 時間이 停止되었습니다.
아아 님이여, 죽음을 芳香이라고 하는 나의 님이여, 걸음을 돌리세요,
거기를 가지 마세요, 나는 싫어요.
-「가지 마세요」(『님의 沈黙』) 부분¹⁸⁾

만해의 시에서 밤은 주요한 시적 배경으로 자주 반복되는 요소다. 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까닭은 「여름밤이 길어요」의 “당신이 가신 뒤에는 여름밤이 길어요”에서 볼 수 있듯이 님의 상실에 의해 비롯된다는 것과 님의 부재가 자신의 현실적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적 화자에게 “긴 밤은 근심바다의 첫 물결에서 나와서, 슬픈 音樂이 되고 아득한 沙漠이 되더니, 필경 絶望의 城 너머로 가서, 惡魔의 웃음 속으로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의미한다. 즉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은 「가지 마세요」에서는 하나의 나라로서 “虛空이 없”고,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戰爭을 하고 있”는 허무맹랑하고 혼란하기 그지없는 사회로 인식되면서, 무엇보다 “宇宙萬像의 모든 生命의 礎대를 가지고, 尺度를 超越한 森嚴한 軌律로 進行하는 偉大한 時間이 停止되”어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곧 ‘森嚴한 軌律로 進行하는 偉大한 時間이 停止’된 사회는 우주의 질서, 곧 진리가 사라진 사회를 암시한다. 이는 한용운이 스님이라는 신분을 두고 볼 때, 일제 치하라는 당대의 역사현실이 불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암울한 사회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만해에게 부정적 현실의 상징으로서 밤은 일제라는 역사적

17) 『한용운 시전집』, 116쪽.

18) 『한용운 시전집』, 25~26쪽.

현실이 불법(佛法)의 상실이라는 점, 곧 진리 부재의 사회현실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님으로 표상되는 불법의 상실, 즉 일제의 침략에도 그 원인 있지만 “만해에게 시대가 ‘밤’의 시대인 것은 당시의 중생들이 님을 깨닫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기 때문”¹⁹⁾이라 할 수 있다.

2) 주권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현실

‘님의 상실’은 당대의 역사사회적 현실로 볼 때 그것은 우리 민족의 주권 상실에 해당한다. 주권의 상실은 「기미독립선언서」에서도 밝혀져 있는 것처럼 육체적 차원의 생명권과 물질적 차원의 생존권 박탈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가치를 착취당하게 됨을 의미한다. 비참한 현실을 통한 고통과 분노의 정서는 만해의 시에서도 당대의 여느 구체적 현실인식의 시와 다름없이 표현되고 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나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시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음으로 秋收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主人은 「거지는 人格이 없다. 人格이 없는 사람은 生命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罪惡이다.」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民籍이 없습니다.
「民籍 없는 者는 人權이 없다. 人權이 없는 너에게 무슨 貞操냐.」하고 凌辱하라는 將軍이 있었습니다.
그를 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激憤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化하는 刹那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윈갖 倫理, 道德, 法律은 갈과 黃金을 祭祀지내는 烟氣인 줄을 알었습니다.

19) 김준오, 『시론』(제3판), 삼지원, 1991, 59쪽.

永遠의 사랑을 받을까, 人間歷史의 첫 페이지에 잉크질을 할까, 술을 마
실까 망서릴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보았습니다」(『님의 沈黙』) 전문²⁰⁾

이 시에서 보이는 시적 화자는 “당신이 가신 뒤”로 ‘거지’가 되고, ‘民籍
이 없는 者’가 된다. 그에 따라 “人格이 없”는 존재로 모욕을 당하고, “人權
이 없는 너에게 무슨 貞操냐”하고 능욕을 당한다. 이 시에서 ‘당신’은 「군
말」에서 적었던 “마시니의 님은 伊太利다”²¹⁾의 내용으로 두고 볼 때 조국,
즉 주권임을 알 수 있다. 주권을 상실함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억압자
로 전락해 온갖 고초를 겪게 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하
고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 시적 화자는 “그를 抗拒한 뒤에, 남에게 대한 激
憤”에 휩싸여 저항과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유토피아
적 의식의 단초를 열어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흘러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
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음 시편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 다음의 결과 곁은
生活苦, 戰爭, 主義, 革命 等
가장 힘있게 進展되는 것은
強者和 債權者의 權利行使다.

해는 저물었다.
모든 것을 자취로 남겨두고
올해는 저물었다.

-「歲暮」부분²²⁾

이 시는 『불교』 제90호(1931년 12월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3·1운동의
좌절 이후 10여년이 흘러도 당시의 민족적 현실은 “해는 저물”은 상태, 즉

20) 『한용운 시전집』, 62쪽.

21) 『한용운 시전집』, 19쪽.

22) 『한용운 시전집』, 322쪽.

‘밤’의 상태가 되어 “生活苦, 戰爭, 主義, 革命 等”으로 고통받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힘있게 進展되는 것은/ 強者와 債權者의 權利行使”만 남은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암울한 시대현실에 대한 상황적 인식은 당대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반역사적인지를 증언하게 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하지만 일정 부분 당시의 조선 민족이 느끼는 주권 상실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현실은 사회 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만하임이 말한 바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의 소멸은 인간이 사물로 전락하는 정태적 상황을 야기”²³⁾하게 하기도 한다. 그만큼 새로운 이상사회에 대한 꿈이 더욱 절실하고 간절해졌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인 것이다.

3. 한용운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의 양상

유토피아적 형상은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반립의 상(像)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기존의 질서에 대응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것과 같다. 질서는 기지(既知)의 도식에 따라 기지의 요소들을 해석하는 반면, 설계는 기존의 질서를 변형시키는 것이며 그 희망이 미지(未知)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적 사유는 질서와 설계와 희망이라는 세 가지 원소들의 결합체이며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보듯이 모순된 현실세계와는 다른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기능적인 구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²⁴⁾ 기본적으로 유토피아니즘은 희망의 철학이며, 일반화한 희망을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묘사로 변환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²⁵⁾

폴 리코르도 “유토피아는 이데올로기와 정반대로 사회 전복적 기능을 수

23) 라이먼 타워 사전트,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문학동네, 2018, 206쪽에서 재인용.

24)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정지창 외, 『유토피아』, 문예미학회, 2000, 3쪽.

25) 라이먼 타워 사전트, 앞의 책, 20쪽.

행한다”²⁶⁾고 하여 이데올로기를 허무는 유토피아의 기능에 주목했다. 이 점은 유토피아 사상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칼 만하임은 유토피아의 특성을 현실 변혁이라 본다. 그는 이데올로기의 특성을 현존 체제의 유지로 정의하면서 유토피아는 행동의 단계로 이행하면서부터 기존의 질서를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 파괴해 버리는 ‘현실 초월적’ 방향설정을 뜻한다고 말한다. 즉 “유토피아적 의식의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역작용을 가함으로써 기존의 역사적 존재로서의 현실성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능력을 실제로 갖고 있다.”²⁷⁾라고 말함으로써 유토피아 사상의 변혁에 대한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 칼 만하임의 이러한 논의를 염두에 둘 때 한용운이 생각하는 문학의 관점은 바로 유토피아 사상의 내용과 동궤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한용운 시에서 ‘불성 회복과 극락정도’, ‘구세주의와 평등사회’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1) 불성 회복과 극락정도

님이 사라진 시대는 불법이 사라진 진리 부재의 시대라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극복의 상상력은 당위의 세계라 할 수 있는 불법, 즉 불성의 회복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다. 만해는 이를 불교적 사상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즉 「님의 沈默」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옵습니다.”에서 보이는 불교적 확신, 윤회사상에 입각한 회자정리(會者定離) 거자필반(去者必返)의 사상으로 님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 믿음으로 이별한 현재의 부정적 상황에 대하여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붓”는 긍정적이면서도 강인한 태도를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6) 위의 책, 207~208쪽에서 재인용.

27) 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267쪽.

이러한 태도는 불교적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역설적 태도라 할 수 있다. 다음 시도 이러한 역설적 인식 속에서 만해가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세계의 단초를 알려주는 구실을 한다.

이별은 美의 創造입니다.

이별의 美는 아침의 바탕(質) 없는 黃金과, 밤의 울(系)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永遠의 生命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오 이별이여.

美는 이별의 創造입니다.

- 「이별은 美의 創造」(『님의 沈黙』) 전문28)

이 시의 주제는 “이별은 美의 創造”라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것은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에 나타난 필연적 사상으로서는 이별, 즉 부정적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긍정의 세계, 참된 이상향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단초가 된다는 인식이다. 그런 점에서 만해에게 있어서 이별은 님으로부터의 타율적인 격리가 아니라 참된 님을 찾으려는 투쟁의 시초를 뜻하며, 따라서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과정은 님을 전취하고 님을 실현시키려는 싸움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큰 슬픔은 큰 기쁨으로 전화되며 거대한 절망은 거대한 희망으로 전화되는 것이다.²⁹⁾ 이에 따라 만해에게 “아아 이별의 눈물은 眞이요 善이요 美다./ 아아 이별의 눈물은 釋迦요 모세요 孛다크다.”³⁰⁾ (『이별』, 『님의 沈黙』)로서 비참에 처한 중생의 구원의 계기를 여는 참된 진리의 실체가 된다.

또한 이 시의 특성이 되고 있는 역설적 인식의 중요성이다. 역설이야말로 만해의 문학을 성립시키는 근본적 구조이고 또한 그 활력의 원천이 된다. 부정을 통해 긍정에 이르고 그것을 다시 부정함으로써 보다 큰 긍정에

28) 『한용운 시전집』, 22쪽.

29) 엄무용, 「만해 한용운론」, 『한용운』, 지식산업사, 1981, 221쪽.

30) 『한용운 시전집』, 33쪽.

의 길을 준비하는 불교적 변증법³¹⁾인 셈인 것이다. 곧 역설적 인식이야말로 변증법적 사유를 통한 유토피아적 질서를 찾으려는 의식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배적 신념 체계에는 사람들이 자기 상황의 실상에 눈멀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유토피아의 꿈은 현실 수용적인 시각을 깨뜨리려는 시도다. 그것은 현상황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다.³²⁾ 그런 점에서 상실과 이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과 자기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와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이것도 충격적인 경험으로써 유토피아적 사유를 촉진하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한용운 시의 역설은 피상적 인식을 뒤집어 진리를 인식케 하는 전복적 사고의 표현인 셈이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에 따라 한용운은 불성이 회복된 상태를 당대의 현실 속에서 그려보게 된다. 다음 시편이 이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세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의 準備가 언 제든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을 좇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나의 죽음의 뒤에 서십시오. 죽음은 虛無와 萬能이 하나입니다.

죽음의 사랑은 無限인 동시에 無窮입니다.

죽음의 앞에는 軍艦과 砲臺가 티끌이 됩니다.

죽음의 앞에는 強者和 弱者が 벗이 됩니다.

그러면 좇어오는 사람이 당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세요, 당신은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세요」(『님의 침묵』 부분³³⁾)

이 시의 중심어라 할 수 있는 ‘오세요’는 당신(/님)의 재림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불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당신의 회귀는 나의 죽음에 깃들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세계는 “虛無와 萬能이 하나”가 되고, “軍艦

31) 염무웅, 앞의 글, 217~218쪽.

32) 라이먼 타워 사전트, 앞의 책, 193쪽.

33) 『한용운 시전집』, 124~125쪽.

과 砲臺가 티끌이 되”며, “强者와 弱者가 벗이 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가리킨다. 이는 불법이 회복된 이상사회로서 모든 생명체가 존엄을 인정받고 사는 세계라 할 수 있다. 폴락은 “유토피아는 인간의 존엄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서 존엄을 성취하는 힘의 근간에 유토피아가 있음을 지적한다.³⁴⁾ 만해는 불교적 실천을 통해 불국토를 현실에 건설하여 모든 중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성이 회복된 상태를 꿈꾸는 시는 한용운의 시에 여러 편으로 나타난다. 다음 두 편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ढ과 치를 잃고 거친 바다에 漂流된 적은 生命의 배는, 아즉 發見도
 아니 된 黃金의 나라를 꿈꾸는 한줄기 希望의 羅針盤이 되고 航路가 되
 고 順風이 되어서, 물결의 한 끝은 하늘을 치고, 다른 물결의 한 끝은 땅
 을 치는 무서운 바다에 배질 합니다.

 님이여, 님에게 바치는 이 적은 生命을 힘껏 껴안아 주세요.

 이 적은 生命이 님의 품에서 으서진다 하야도, 歡喜의 靈地에서 殉情
 한 生命의 破片은 最貴한 寶石이 되야서 조각조각이 適當히 이어져서, 님
 의 가슴에 사랑의 徽章을 걸겠습니다.

 님이여 끝없는 沙漠에 한 가지의 것덜일 나무도 없는 적은 새인 나의
 生命을 님의 가슴에 으서지도록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부서진 生命의 조각조각에 입맞춰 주세요.

 -「生命」(『님의 沈黙』) 전문³⁵⁾

 아니어요. 님의 주신 눈물은 眞珠 눈물이여요.

 나는 나의 그림자가 나의 몸을 떠날 때까지, 님을 위하여 진주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아아 나는 날마다 날마다 눈물의 仙境에서 한숨의 玉笛을 듣습니다.

 나의 눈물은 百千 즐기라도, 방울방울이 創造입니다.

34) 라이먼 타워 사전트, 앞의 책, 190쪽.

35) 『한용운 시전집』, 44쪽.

눈물의 구슬이여, 한숨의 봄바람이여, 사랑의 聖殿을 莊嚴하는 無等等의 寶物이여.

아아 언제나 空間과 時間을 눈물로 채워서 사랑의 世界를 完成할까요.
-「눈물」(『님의 沈黙』) 부분³⁶⁾

먼저 「生命」에서 불교적 유토피아 상(像)은 “아즉 發見도 아니 된 黃金의 나라를 꿈꾸는” 구절과 “이 적은 生命이 님의 품에서 으서진다 하야도, 歡喜의 靈地에서 殉情한 生命의 破片은 最貴한 寶石이 되야서 조각조각이 適當히 이어져서, 님의 가슴에 사랑의 徽章을 걸것읍니다.”에서 볼 수 있듯이 ‘黃金의 나라’, ‘歡喜의 靈地’, ‘最貴한 寶石’, ‘사랑의 徽章’ 등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고귀하며, 기쁨이 넘치는 곳이다. 이는 「눈물」에서 언급하는 “사랑의 聖殿을 莊嚴하는 無等等의 寶物”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아름답고 고귀한 사물로 꾸며져 있는, 즉 ‘莊嚴하는’ 나라는 불국토의 상징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苦痛의 가시덤불 뒤에, 歡喜의 樂園을 建設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아아 幸福입니다.”(「樂園은 가시덤불에서」, 『님의 沈黙』)³⁷⁾의 ‘歡喜의 樂園’이나, “아아 나는 滿足을 얻었노라./ 아즈랑이 같은 꿈과 金실 같은 幻想이 님 기신 꽃동산에 돌릴 때에, 아아 나는 滿足을 얻었노라.”(「滿足」, 『님의 沈黙』)³⁸⁾에서 보이는 ‘아즈랑이 같은 꿈과 金실 같은 幻想이 님 기신 꽃동산’ 등의 이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이러한 세계가 불국토임을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生命」의 시에 나오는 ‘생명’, 즉 “달과 치를 잃고 거친 바다에 漂流된 적은 生命의 배”가 오직 가 닿고 싶은 ‘황금의 나라’가 곧 극락정토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실상 극락정토를 다스리고 있는 아미타불은 영원실상의 부처님으로 구원의 부처님이자 생명의 부처님이다.³⁹⁾ 이 시에 나오는 ‘생명’은 고향을 지나 참된 안식의 땅을 찾아 나서는 존재로 바로 아미타불이 건설한 극락정토에 닿고자 하는

36) 『한용운 시전집』, 98~99쪽.

37) 『한용운 시전집』, 77쪽.

38) 『한용운 시전집』, 96쪽.

39) 보광(한태식) 스님, 「스님이 보는 극락세계」, 최규홍 외, 『유토피아 인문학』, 석탑출판, 2013, 85쪽.

중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교 경전을 살펴보면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은 칠보나무의 아름다운 장엄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리를 설법하는 자연환경의 장엄함, 칠보누각과 연못의 아름다움, 대지의 장엄 등으로 나타나면서 온갖 자연과 보석을 비롯한 온갖 인공물의 아름다움이 모두 불법의 진리를 구현함에 따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⁴⁰⁾는 점에서 위의 시들에 언급된 아름다움이 극락정토의 성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한方便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극락정토가 그냥 주어진 낙원의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극락정토는 장엄의 세계로서 이 장엄이란 인연과보(因緣果報), 인과응보에 의해 이루어진 세계다. 즉 노력 없이 장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보살의 수행 노력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 세계를 아름답게 꾸민 것이다. 즉 이상세계로 만든 것이다.”⁴¹⁾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깨우침을 통해 보살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실천적 장소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용운이 추구하는 불교적 유토피아 의식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적 낙원 의식은 현실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전 학자 M.I.핀리가 “모든 유토피아적 사고에는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상이나 꿈, 혹은 적어도 갈망의 요소가 담겨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그런 꿈을 꾸다. 굳이 사회 일반이나 세상 전체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말이다.”⁴²⁾라고 말한 것처럼 당대의 결핍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폄박받는 민중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2) 구세주의와 평등사회

한용운은 종교적 실천을 단순한 기복신앙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한용운은 종교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한다. 도대체 우리가 종교를 믿는 것은 무엇 때

40) 위의 글, 60~80쪽

41) 위의 글, 55쪽.

42) 라이먼 타워 사전트, 앞의 책, 188쪽에서 재인용.

문인가? 그것은 인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불교는 불생불멸의 경지를 참된 자아에서 구하도록 가르쳤고, 미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신을 버림으로써 올바른 희망을 갖고 살도록 이끈다고 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에서 신비주의의 껍질을 벗기고자 하는 계몽주의자·합리주의자 만해의 면모를 여실히 보게 되는 듯하다.⁴³⁾

이미 앞에서 보았듯 한용운은 합리적 계몽주의적 사고를 가졌다.⁴⁴⁾ 계몽주의의 본질은 인도주의, 즉 불쌍한 중생에 대한 구원의식과 연관된다. 이와 관련하여 만해는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중생제도(衆生濟度)의 자비심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역설한다. 한 사람이라도 해탈에 이르지 못한 병든 중생이 남아 있을 때, 그것을 곧 자기의 병으로 여기고 자신의 해탈을 거부하는 정신, 이러한 대승적 정신이 곧 보살정신이요 불교정신의 핵심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런 정신을 그는 구세주의라고 불렀다. 구세주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인간의 의식적 실천이다. 이것이 당대의 역사적 현실 속에는 수렁에 빠진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의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고다. 다음 시편들이 이를 보여준다.

님이여, 당신은 義가 무거웁고, 黃金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거지의 거친 발에 福의 씨를 뿌리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옛 梧桐의 숨은 소리여.

님이여, 당신은 봄과 光明과 平和를 좋아하십니다.
 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慈悲의 菩薩이 되옵소서.
 님이여, 사랑이여, 얼음바다의 봄바람이여.

-「찬송」(『님의 沈黙』) 부분⁴⁵⁾

43) 염무웅, 앞의 글, 204쪽.

44) 호라티우스의 시 구절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서구 근대계몽주의의 표어가 되었고, 계몽사상의 전투에 점점 더 깊이 참여한다고 느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서 마르크스적인 성격을 지니게끔 하였다. 이 계몽주의의 표어의 성격 역시 한용운의 불교적 실천과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프랑코 벤투리, 김민철 옮김,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글항아리, 2018, 22~27쪽.

45) 『한용운 시전집』, 80쪽.

義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놀을 밟습니다.
 봄 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 머리에서 미끄럼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나의 길」(『님의 沈黙』) 부분⁴⁶⁾

李舜臣 사공 삼고
 乙支文德 마부 삼아
 破邪劔 높이 들고
 南船北馬 하야 볼까
 아마도 님 찾는 길을
 그뿐인가 하노라

-「無題 一四수」 부분⁴⁷⁾

이 세 편의 시에 고루 나타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려는 의지와 그러한 실천에의 다짐이다. 먼저 「찬송」에서는 “거지의 거친 밭에 福의 씨를 뿌리”는 휴머니티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정신을, 더 나아가 “弱者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는 慈悲의 菩薩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 구원과 개혁의 보살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길」에서는 “義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는다는 표현을 통해 사회개혁을 위한 희생을 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無題 一四수」에서는 “李舜臣 사공 삼고/ 乙支文德 마부 삼아/ 破邪劔 높이 들”어 “님 찾는 길을”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 시에서 님은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대상이라 할 때, 이순신과 을지문덕의 이름을 들고, 샛됨을 깨뜨리는 칼을 높이 든다는 내용으로 볼 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엿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들에 나타난 휴머니티를 인류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바로 유토피아 의식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46) 『한용운 시전집』, 28쪽.

47) 『한용운 시전집』, 362쪽.

있다. 왜냐하면 가족을 넘어 인류적 차원의 사랑을 하는 것을 유토피아 의식의 필수적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⁴⁸⁾ 유토피아 사회는 사랑의 유토피아⁴⁹⁾이자 구원의 사회이다.

만해는 “불교의 또 하나의 특징인 구세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기주의의 반대개념이다. 불교를 논하는 사람들이 흔히 불교는 자기 한 몸을 위하는 종교라 하거니와 이는 불교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 몸을 위하는 것은 불교와는 정반대의 태도인 까닭이다”라고 말하여 대승불교적 측면에서 중생 구제의 불교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이며, 역사의 발전 단계에 따른 사회 진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적 사고인 것이다.

이러한 유토피아적 사유 끝에 그는 구체화된 유토피아 사회상을 제시하게 된다. 다음 시가 그것이다.

아득한 冥想의 적은 배는 것이없이 출렁거리는 달빛의 물결에 漂流되야
멀고 먼 별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微笑와 봄 아침과 바다 소리가 습하여 사람이
되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玉璽의 귀한 줄도 모르고, 黃金을 밟고 다니고, 美人의
靑春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冥想의 배를 이 나라의 宮殿에 매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天國을 꾸미라고 들어왔습니다.

달빛의 물결은 흰 구름을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을 맞추어
우줄거립니다.

-「명상」(『님의 沈黙』 전문⁵⁰⁾

48) 김태진, 『대동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북드라마, 2012, 36~80쪽.

49) 위의 책, 76쪽.

50) 『한용운 시전집』, 117쪽.

이 시에서 형상화되는 유토피아 사회상은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微笑와 봄 아침과 바다 소리가 습하여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玉璽의 귀한 줄도 모르고, 黃金을 밟고 다니고, 美人의 青春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에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용운이 생각할 때 유토피아에 사는 사람들은 ‘어린 아기의 微笑와 봄 아침과 바다 소리가 습하’여 된 사람, 즉 순수와 자연스러움이 결합된 존재들로서 세속적 욕망에 물들지 않은,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아 자연의 이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존재들에게 어울리는 사회는 ‘玉璽의 귀한 줄도 모르’는 무계급사회, 즉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이자, ‘黃金을 밟고 다니’는 형상으로서 물질적 궁핍이나 차별이 없는 사회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美人의 青春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경지에 도달함으로써 피상적 현상이나 욕망에 물들지 않는, 높은 정신적 가치를 향유하는 사회현실로 제시된다. 즉 높은 정신적 가치를 유지한 채 물질적 풍요와 자유, 평등이 보장된 이상 사회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불교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당대의 역사적 사회현실을 극복한 상태의 구체적 유토피아 사회상이다. 왜냐하면 더 나은 사람들을 만드는 더 나은 사회질서는 유토피아의 전형⁵¹⁾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사회상의 제시는 만해에게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조선불교유신론」에서 만해는 “소위 평등이란 진리를 지적한 것이며, 현상을 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불평등한 거짓된 현상에 미혹하여 해탈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신 까닭에 평등한 진리를 들어 가르치셨던 것이니, 〈중략〉 근세의 자유주의와 세계주의가 사실은 평등한 이 진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고 말하고 있다. 또 「조선독립의 서」에서는 “독일 혁명은 사회당의 손으로 이룩된 것인 만큼 그 유래가 오래고 또한 러시아 혁명의 자극을 받는 바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총괄적으로 말하면, 전쟁의 쓰라림을 느끼고 군국주의

51) 라이먼 타워 사전트, 앞의 책, 191쪽.

52) 『한용운 전집 2』, 44쪽.

의 잘못을 통감한 사람들이 전쟁을 스스로 파기하고 군국주의 칼을 분질러 그 자살을 도모함으로써 공화혁명의 성공을 얻고 평화적인 새 운명을 개척한 것이다.”⁵³⁾라고 하여 사회주의적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적 평등의 개념을 형이상학적 관념으로서만 보지 않고 역사사회적 현실의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한 것이다. 그는 근대의 자유주의 및 세계주의 속에서 불교적 평등의 실현과정을 본다. 이러한 사상의 흐름 속에 한용운 불교사회주의 의식을 시「명상」속에 구체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역사발전 단계에서 존재했던 계급의 소멸이며 따라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에 대한 기초가 사유재산제의 폐지다.⁵⁴⁾ 이러한 사회주의적 사상의 특성이 위 시에 나타나고 있다. 불교사회주의는 이러한 배경에서 만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만해는 1931년 12월 《삼천리》 기자와의 대담 「釋迦의 정신 - 기자와의 문답」에서 “불교사회주의에 대해 저술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⁵⁵⁾라고 말한 바가 있다. 또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와 같은 것은 교리 자체에 있어서 평등주의 非私有主義 즉 사회주의 소질을 俱有하고 있는 것”이라고 『불교』 93호(1932.3)에서 말하고 있다. 이후 그 생각을 구체화하지는 않았어도 불교사회주의가 갖는 용어상의 함의로 볼 때 불교적 정신과 결합되는 사회주의 사상의 내용을 불교사회주의란 용어로 표현하여 무계급사회의 평등한 사회를 불교적 이상사회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용운의 불교사회주의는 인간만의 자유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중생의 구제를 통한 자유와 평등의 사회 건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는 우주적 차원의 사회주의, 즉 모든 중생이 구원받는 선상에서의 평등사회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⁵⁶⁾

53) 『한용운 전집 1』, 348쪽.

54) 강대석,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꿈꾼 유토피아』, 한길사, 2018, 214쪽.

55) 『한용운 전집 2』, 292쪽.

56) 이는 그가 「내가 믿는 佛敎」에서 “그러면 불교의 사업은 무엇인가. 가론 博愛요 互濟입니다. 만유를 모두 동등으로 박애·호제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용운 전집 2』, 288쪽.

이 시의 중요한 또 하나의 점은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天國을 꾸미라고 들어왔습니다.”에 나타난 대승적 차원의 ‘하화중생(下化衆生)’ 사상이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명상’ 속의 유토피아적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역사적 현실 속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돌아오는 선택’을 감행한다. 유토피아 사상이 갖는 역사적 현실 속의 구체적 인간 노력의 특성이 이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흥희표 역시 이 시에 나오는 “이름도 모른 나라”를 일체의 번뇌에서 해탈한 불생불멸의 경지에 이른 부처님이 사는 곳이라 보면서 시인이 명상 속에서 불타의 세계, 이상의 세계를 발견했으나 그 세계를 두고 현실로 돌아온 것은 그러한 세계를 조국 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⁵⁷⁾이라고 파악한다. 송옥 역시 이를 두고 “한용운이 無上의 佛道에 다다른 길과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하여 독립시키고 구제하는 길을 꼭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⁵⁸⁾으로 풀이하고 있다. 대승적 보살 정신을 유토피아적 사유 속에 녹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용운은 1928년 12월 28일자 《回光》 창간호에 실려 있는 「成佛과 往生」에서도 “부처님 되랴거든/ 衆生을 여의지 마라./ 極樂을 가려거든/ 地獄을 避지 마라/ 成佛과 往生의 길은/ 衆生과 地獄”⁵⁹⁾이라고 노래함으로써 중생의 구원이 바로 ‘成佛과 往生의 길’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고 있다. 이는 끝까지 한용운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유토피아적 사유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토피아 사회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어 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유토피아는 탄생과 성장, 발전을 거치는 나라⁶⁰⁾로서 부단히 당대의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여 의식 있는 민중들에 의해 실천되어야 할 사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57) 흥희표, 『한국현대시 이해와 감상』 3판, 한림출판사, 1989, 117쪽.

58) 송옥, 「唯美的 超越과 革命的 我空」, 신동욱 편, 『한용운』, 문학세계사, 1993, 152쪽.

59) 『한용운 시전집』, 317쪽.

60) 주경철, 『유토피아-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세계절출판사, 2015, 111쪽.

4. 결론

한용운 시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의 특성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의 사회상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먼저 부정적 현실 비판의식의 측면에서 '님의 침묵과 진리 부재의 현실', '주권 상실과 불평등한 사회현실'의 양상을 보였다. 「님의 침묵」 등의 시를 통해 일제 하 침략의 현실을 불법이 사라진 상태, 즉 부처님으로 상징화된 님의 침묵으로 인해 무법천지로서 진리 부재의 현실임을 표현하였고, 「당신을 보았습니다」 등의 시를 통해 일제의 침략에 따른 주권과 인권의 상실이 우리 민족을 수탈과 능욕의 대상이 되게끔 하여 매우 불평등하고 처참한 현실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었다.

둘째, 당대 사회의 부정적 면을 극복한 사회상으로 제시하는 유토피아 사회상은 한용운 시에서 먼저 '불성 회복과 극락정토'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작품들을 통해 불교적 사상에 기반을 둔 역설적 인식으로 보다 고난에 찬 경험이 불법을 되찾게 되리라는 진리의 확신으로 제시되면서, 현실 속에서 갈망하는 극락정토의 이미지를 민족적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하였다. '구세주의와 평등사회' 부분에서는 일제 하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대승적 보살정신을 입각한 중생 구제의 사상을 피력하면서 「명상」이라는 시를 통해 불교사상으로 볼 수 있는 무계 급성과 평등정신, 물질적 궁핍이 없는 사회성을 그려내어 이상적 사회상을 그려내었는데, 이는 그가 당대에서 말하고 있는 불교사회주의 사상의 구체화 형태로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정리할 때 한용운의 불교적 유토피아 의식은 일제 하 고통스런 민족적 현실에서 불법의 회복을 통한 불국토가 건설되길 꿈꾸면서, 그러한 현실적 실천의 한 방편으로 불교사회주의에 해당하는 평등사회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자리 잡길 염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최동호 편, 『한용운 시전집』, 문학사상사, 1989.

한용운, 『한용운』, 지식산업사, 1981.

_____, 『한용운 전집1』, 신구문화사, 1973.

_____, 『한용운 전집2』, 신구문화사, 1973

2. 논저

강대석,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꿈꾼 유토피아』, 한길사, 2018.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思想』, 탐구당, 1988.

김옥순, 「한국 근대시에 나타난 유토피아에 대하여-한용운과 신동엽의 시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어문학회, 2000.

김준오, 『시론』(제3판), 삼지원, 1991.

김태진, 『대동서, 유토피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 북드라마, 2012.

김참,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이상향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보광(한태식) 스님, 「스님이 보는 극락세계」, 최규홍 외, 『유토피아 인문학』, 석
탑출판, 2013.

송옥, 「唯美的 超越과 革命的 我空」, 신동욱 편, 『한용운』, 문학세계사, 1993.

염무웅, 「만해 한용운론」 『한용운』, 지식산업사, 1981.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장재진, 『근대 동아시아의 종교다원주의와 유토피아』, 산지니, 2011.

정지창, 「유토피아 · 유토피스틱스 · 리얼리즘」, 정지창 외, 『유토피아』, 문예미
학회, 2000.

정혜정, 「동학과 불교사상」, 동학학회, 『동학과 전통사상』, 도서출판 모시는 사
람들, 2004.

주경철, 『유토피아-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홍희표, 『한국현대시 이해와 감상』 3판, 한림출판사, 1989.

라이먼 타워 사전트, 이지원 옮김, 『유토피아니즘』, 문학동네, 2018.

로자벳 캔터, 김윤 역, 『공동체란 무엇인가』, 심설당, 1983.

마르틴 부버, 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에른스트 블로흐, 박설호 역, 『희망의 원리』 1권, 솔, 1993.

칼 만하임, 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아출판사, 1991.

프랑코 벤투리, 김민철 옮김, 『계몽사상의 유토피아와 개혁』, 글항아리, 2018.

〈Abstract〉

A Study of the Buddhist Utopian Consciousness in Han Yong-Un's Poetry

Kim, Kyung-Bok

The necessity of seeing Han Yong-un's poems from the perspective of utopia thought was because his poems were an intentional plan to deliver a message of salvation to our nation that was in a quagmire. His poems are linked to 「Reformist's Theory of Joseon Buddhism」 and 「Joseon Independence Reason Book」 in terms of literary and literary history, and these two writings contain Han Yong-un's historical consciousness of practice. It is also possible to find traces of his utopian thinking in his mental history when he himself used the term "Buddhist socialism".

Consider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utopia's ideas, along with criticism of negative reality, suggest society images for alternatives, Han Yong-un's poem, 'Utopian Consciousness' shows in terms of negative reality criticism, the 'Silence of Nim' and the reality of absence of truth and the 'lost sovereignty and unequal social reality', and in terms of an alternative society image, it shows aspects of "Buddha-nature Restoration and the 'Pure Land of Sukhavati', and 'saviorism and equal society'. Above all, the 'Silence of Nim' and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truth revealed under the Imperial Japan, the lawlessness and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truth owing to the 'Silence of Nim', which symbolizes the reality of invasion as Buddha. The 'loss of sovereignty and unequal social reality' reveals that the loss of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caused by the invasion of Imperial Japan makes the nation subject to exploitation and humiliation, so that it falls into a very unequal reality.

The utopia society image, presented as a society image that overcomes the negative aspects of the contemporary society, presents the image of

Pure Land of Sukhavati, longed by sentient beings as a message of national salvation in Han Yong-un's poems, as the 'Buddha-nature Restoration and the Pure Land of Sukhavati' are presented as a paradoxical perception based on Buddhist's thoughts, with the conviction that a more arduous experience will bring back true Buddha Dharma. 'Saviorism and equal society' expresses the idea of sentient beings salvation based on the prevailing Bodhisattva Idea to the Korean people under Imperial Japan, and depicts a society with classlessness and equality, and no material deprivation as a Buddhist's ideal society image. This can be seen as the embodiment of Buddhist socialism thought that he addressed at the time.

Seen as such, Han Yong-un's Buddhist's Utopian Consciousness dreamed of building a Land of Buddha through the restoration of Buddha Dharma in the painful national reality under Imperial Japan, and hoped that the equal society, as one of such practical practices, which corresponds to Buddhist socialism, would be placed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 Key Words: Han Yong-Un, Utopian Consciousness, Buddhist Socialism, Saviorism, Equal Society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5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5일